

관미한 두 제도, 두 현실

재해를 당해도 불행을 모른다



때없이 쏟아지는 무더기비와 우박, 눈사태, 가뭄, 해일 등 끊임없이 무섭게 덮쳐드는 자연 재해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 이든 가지 않고 수시로 들이닥치는 이런 자연의 광란은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주고 있다. 하여 지구상의 그 어디서나 자연재해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재해를 겪은 사람들속에서 비판과 슬픔, 불행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언젠가 어느 한 나라

의 인견옹호단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재해를 당하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생활상고충을 겪는것은 다반사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예로와 난관이 아무리 겹쌓여도 국가가 인민을 보살피는 일을 한사도 소홀히 한적이 없다. 엄혹한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공화국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울러나오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주는데

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는 말의 뜻을 다시금 음미해보게 한다.》

2012년에 있는 개천의 조양탄광지구와 검덕지구에서의 큰물피해, 2015년의 라선지역에서의 큰물피해, 2016년의 함북도북부지구에서의 큰물피해, 2020년의 큰물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이 땅을 휩쓴 자연의 광란은 너무도 큰 피해를 가져왔었다.

허나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조선로동당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 큰물이 휩쓸고간 황량한 폐허에 본래보

다 더 훌륭하고, 더 황홀한 마을들과 거리가 짧은 기간에 일떠서 인민은 크나큰 행복속에 격정을 터친다.

《자연의 광란은 오랜 세월 다저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휩쓸어왔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만복의 보금자리를 새로 지도우에 새겨놓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우리 대청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상이 다 아는 대청리로 천지개벽되었습니다.》

...

이것은 시련에 부닥쳐도 설움을 모르고 자연의 재앙을 당해도 격정을 모르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의 진정한 토로이다.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어도 불행은 모르는 공화국의 인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공화국이 결코 조건이 좋아서, 모든것이 풍족해서 재해를 당고 일떠서며 인민을 위한 만복의 보금자리를 일떠세우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사회제도가 인민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기때문이다.

인민중심, 인민사랑이 국책으로 되고있는 이 땅에서는 북반의 한끝으로부터 바다의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펼쳐져 자연의 광풍이 휩쓸고 가는곳에서나 재앙의 난파도를 밀어내며 행복의 파도가 출렁이고있다.

이것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화폭이다.

하기에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은 누구나 한목소리로, 심장으로 웨친다.

—사회주의의 우리 제도가 제일입니다. 그 품 떠나 우린 못살니다.

강현철

폭우피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조선에서 얼마전 무섭게 들이닥친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집권층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일찌감치처럼 윤석열역도는 폭우가 쏟아져내리는 상황에서도 뼈저릿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되돌아섰는가 하면 재난발생보고를 받고서

는 추대를 부렸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것들은 이러한 윤석열역도를 비호하면서 역도가 사망자들이 발생한 침수현장을 찾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재난대응노력》을 광고하는 놀음을 벌여놓았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자는 《대통령》이 반드시 현장치위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자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수준으로 꾸러진것만큼 피해복구지휘에 큰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층속에서는 가족이 참사를 당한 수해현장사진을 《정책선언용뉴스》로 활용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소름이 끼친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불감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편 남조선의 집권당인 《국민의힘》것들은 서울시내의 한 수해현장에 밀려가 피폐복구부사할동이라는것을 연출하는 과정에 회회락락 하였던가 하면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좀 왔으니 좋았다. 정선로동만 하다가 옥색로동을 하니 마음이 가볍다는 망언을 해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층속에서는 봉사활동을 간것인지, 구경을 간것인지 알수 없다. 《국민의힘》에게는 재난상황이 《홍보》수단으로 여겨지는가, 피해자들은 피눈물나는데 웃고 떠들고만 있다. 그들이 와야 길만 막히고 복잡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만 끼친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폭우로 참사를 당한 서민들은 가슴이 터져와 피눈물을 흘리고있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었는듯 뼈저릿 집으로 퇴근하고 히터덕거려며 망언만을 늘어놓는 윤석열 패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저주와 규탄은 날이 커가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문명원에 넘치는 희열과 랑만

평양326전선종합공장을 찾아서



당내부는 문명원의 체모에 잘 어울리었다.

우리는 주승회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웃으며 꾸러진 과학기술보급실로 걸음을 옮겼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전자도서열람실, 사회과학도서열람실, 과학기술도서열람실, 원격강의실 등의 과학기술, 교육기점들이 꾸러져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공장종업원들의 문명에 대한 지향과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누려가는 사회주의문명.

이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이 국가의 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있는 세상,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꿈같은 현실인것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비해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 공장종업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문명원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거부기를 형성한 조각들, 수조에서 꼬리치는 물고기들이며 《소몰이군》과 같은 그림들로 장식된 휴식방에서 장기와 옷돌이를 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이곳 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옥돌방, 소금항도방은 신경통과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부인병 등의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아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한다.

때는 점심참이라 우리는 2층에 있는 종업원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준철 작업반장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우리 공장종업원들은 고기와 달걀, 물고기를 비롯한 영양제식사를 보장받았습니다. 혁신자들에게는 닭, 토끼고기와 같은 특식도 차려줍니다.》

현대적인 주방설비들과 구색을 갖춘 식탁이며 의자들,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러진 식

독자문답

재중동포 환자수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기간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있는가

2012년 9월 공화국에서는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표되었다.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은 1년 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 초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 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세대대들의 혁명적세계관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 완성된 중등일반직과 현대적인 기초기술 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인재후비들로 키우는 의무교육이다.

12년제 의무교육기간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고있는 혜택은 실로 크다.

유치원 높은반을 마치고 초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무료로 학용품, 교복, 식사, 방학숙식을 제공받는다. 학생들은 컴퓨터를 리용한 정보기술학습, 시청각설비를 리용한 외국어학습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목학습에 리용되는 각종 설비와 자재, 시약과 도구 등을 무료로 리용하고있다.

도서관에서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들을 무료로 열람, 대출하고있으며 학교체육관, 수영장, 음악무용실을 비롯한 각종 소조들에서 마음껏 과외생활을 하고있다.

각지의 소년단야영소들에서 돈 한푼 안내고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으며 무료 야영숙박지, 혁명사적지, 명승지, 공장, 농장,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견학, 참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섬, 깊은

산골의 몇몇 안되는 어린이들 위해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학교(분교)도 수천개나 세워져있다.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훌륭한 장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국가적으로 량강도와 자강도를 비롯하여 학교길이 불편한 곳마다에 통학렬차나 통학버스, 통학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배울수 있게 하고있다.

학생들은 학생소년군, 학생소년회관, 청소년체육학교 등에서 희망과 재능의 노래를 활짝 꽃피우고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원아들은 국가의 혜택으로 먹고 입고 쓰고 배우는 모든것을 보장받았으며 모인, 풍요하고 학생들은 장애자대우를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대학수업을 받으며 국가가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수험표발급, 기숙조건보장, 귀교 등 조건을 전적으로 담당하고있다. 이들이 공부하는 전기간 교육조건과 환경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되고있다.

이렇듯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에도의 혜택아래 누구나 동등한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마음껏 배우며 높은 중등일반직과 기술기능뿐 아니라 고상한 품성, 튼튼한 체력을 갖춘 훌륭한 나라의 역군들로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우월성을 알리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공화국인민의 모습은 외국의 벗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주체사상연구 우강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은 미국의 은갖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는 조선의 주요시책들이다. 사회가 회복하며 전체 인민이 하나로 뭉친 조선에서는 교육을 중시하고 인간의 건전한 발전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고있

있겠는가. 조선의 사회제도는 온갖 부정부패와 범죄, 억어 빠진 문화가 범람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별가리아조선전선협회는 불례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 집하였다.

《사회경제적리보장에 있어서 조선은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실업자가 없고 로동할 권리가 인민에게 보장되는 나라가 없

을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정책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고있다.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이 황홀하게 꾸러진 궁전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며 자라나고있다. 특히 김정영동지의 사랑속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해마다 건설되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다. 조선은 민이아말로 세계에서 제일 부러운 인민이다. 그들의 얼굴이 비친 웃음과 평은감은 결코 지어낼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우월성을 알리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본사기자